

아이디어창출 및 발명의 발상기법

〈前號에서 계속〉

발명가의 마음가짐

현대는 발명시대

대부분의 사람들은 발명하면 전기·전화·TV·컴퓨터·로봇·로켓·인터페론 등 첨단 기술제품을 생각한다.

그러나 사람들이 아침에 일어나 잠자리에 들 때까지 사용하는 수많은 물건들도 모두 발명품이고, 이들 생활필수품의 발명은 대부분이 생활주변의 간단한 아이디어에서 탄생되고 있다. 또 이같이 간단한 아이디어에서 탄생된 생활필수품에 속하는 발명품일수록 첨단기술제품보다 기업화(상품화)가 쉽고 시장도 넓어 수많은 사람들이 발명가 사장이 되고 있다.

작은 아이디어도 그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산업재산권(특허)증 실용신안(기존 발명품의 기능을 보다 편리하게 개선한 고안)이나 의장(기존 발명품의 모양을 보다 아름답게 디자인한 고안)으로 특허청에 출원하여 등록을 받으면 각각 10년과 8년 동안의 독점권리가 주어지고, 등록을 받는 순간 정부가 인정하는 발명가가 된다.

따라서 사람은 남녀노소 누구나 발명가가 될 수 있다. 또 누구나 할 수 있는 작은 발명(실용신안 및 의장)이 과학자나 연구원들만이 할 수 있는 첨단기술 발명특허보다 더 많이, 더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팔리고, 가장 유용하게 사용되고, 가장 많은 돈을 번 발명품도 생활주변의 간단한 아이디어에서 탄생되었다.

이처럼 극히 작은 발명도 그 발명가에게 출세와 명예와 행복을 안겨준다.

13세의 목동 소년이었다던 조셉은 장미넝쿨의 가시를 보고 철조망을 발명하여 계리사 11명이 1년동안 계산했어도 합계를 찾아낼 수 없을 정도의 많은 돈을 벌었으며, 18세의 병공장 공원이었던 루드는 주름치마를 입은 여자친구의 모습을 닮은 병을 만들어 그 특허권을 코카콜라 회사에 6백만불에 팔았다. 그 병이 65년동안 세계인의 사랑을 받는 코카콜라의 병이다.

또 무명의 화가였던 하이만은 「연필+지우개」의 아이디어로 지우개가 달린 연필을 발명하여 그 명성을 세계에 떨쳤으며, 현재 한국 발명학회 회장인 신석균씨는 3년전 「라디오+머리핀」의 아이디어로 머리핀 라디오를 발명하여 국제발명품전시회에서 준대상을 받았다.

작은 발명으로 성공한 사례는 우리나라 발명계에서도 수없이 찾아볼 수 있다.

필자는 그동안 이런 발명가를 1천명이 넘게 만난 바 있다.

역시 작지만 세계적인 발명품으로 손꼽히는 이태리 타월(목욕 수건)은 김필곤씨가 발명했고, 카튼팩(종이로 만든 음료 용기)은 신석균씨가 발명했으며, 지압용 건강양말은 원인호씨가 발명했는데, 이들 세 발명가들은 모두 생존해있다.

또 홍성모씨는 인조꽃을 보고 2백여 종류의 인조과일을 발명하여 중소기업의 사장이 되었으며, 전국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가로수의 밑부분을 보호하는 무쇠 덮개를 발명한 박인호씨는 중견기업의 회장이 되었다.

이밖에도 나뭇결 무늬가 있는 인조목재를 발명한 서건희씨, 돛자리를 짜고버리는 짜투라기

인초로 인형을 만드는 방법을 발명한 고창암씨, 평면식 등사기를 원통식 운전등사기로 개량 발명한 강태욱씨, 세줄 지퍼를 발명한 이행용씨, 자동차 핸들 덮개를 발명한 박영미여사, 온도계가 붙은 젓병을 발명한 김종연씨, 분수탁자를 발명한 나중환씨, 조립식 완구 블럭을 발명한 심재훈씨, 자동판매기 음악송출장치를 발명한 이석우씨 등 1천여명의 지극히 평범한 우리 이웃의 보통사람들이 작은 발명으로 성공했다.

이들의 발명품은 언뜻보면 누구나 할 수 있었던 작은 발명이다. 그러나 일상생활에서는 컴퓨터 등 첨단기술의 발명품 보다도 이런 작은 발명이 더 유용하게 쓰이고 있으며, 서독·뉴욕·제네바에서 열리는 국제발명품전시회와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전국우수발명품전시회에서도 당당히 입상한 바 있다.

우리 모두 발명가가 되자. 작더라도 유용하게 쓰이는 발명을 하는 사람이 진정한 발명가이다.

발명하는 시간과 장소

개인 발명가들의 발명에는 시간과 장소에 구애됨이 없다. 필자는 수많은 발명가들을 만나 취재를 하면서 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몇년전까지만해도 개인 발명가에게는 발명에 알맞는 시간과 장소가 있는 것으로 교육되었고, 또 많은 개인 발명가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다.

이미 오래전에 발명으로 성공한 개인 발명가들은 언제 어디서 발명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믿고 있었는가를 알아보는것도 무의미하지는 않을 것이다.

선인들은 아침이 운명을 좌우한다고 생각했다. 무슨 일을 하던간에 아침이 가장 좋다고 생각했다.

음악가 베토벤과 모짜르트도 새벽에 작곡을 시작했고, 철학자 칸트도 새벽부터 사색에 잠겼으며, 발명왕 에디슨도 이른 아침 연구실을 찾았다.

사람에게 아침처럼 중요한 시간도 없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남보다 더 노력한 사람이 성공한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아침은 차

분하고 희망에 차 있다.

따라서 선인들은 발명가에게의 아침은 연구를 시작하는 시간이고, 저녁은 연구를 마무리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발명하기에 가장 좋은 시간을 아침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요즘 발명가들도 마찬가지다. 필자가 최근에 만난 발명가들은 발명하기에 가장 좋은 시간을 첫째, 아침 일찍, 둘째, 배가 조금 고플 때, 셋째, 궁지에 몰렸을 때, 넷째, 산책할 때 및 사색할 때, 다섯째, 일상생활 중의 순으로 대답했다.

그러면 발명의 장소는 어떠한가? 연구실 말고도 세곳이 있었다. 선인들은 이를 가르켜 '발명장소의 三上'이라고 했다.

그 첫번째 장소는 '침대 위'였다. 침대 위처럼 편한 곳도 없다. 따라서 잠들기 전 또는 꿈속에서 금쪽 같은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것이다. 이때문에 선인들은 베개 옆에 항상 연필과 종이를 놓아두고 떠오르는 아이디어를 즉시 기록했다.

두번째는 화장실의 '변기 위'였다. 이곳은 외부와 단절된 좁은 공간이지만 아무런 방해도 없는 편안한 공간으로 사색의 장소로서는 그만이다. 선인들은 창자내에서 대소변이 배설될 때 머리에서는 새로운 생각이 나온다고 믿었다. 속설에 따르면 세종대왕의 훈민정음 창제의 발상도 이곳에서 이루어 졌다고 한다. 따라서 이곳에도 연필과 종이도 준비되어 있었다. 최근 활발한 저술활동을 하고 있는 발명이론가 강신묵 새생각회 회장도 '화장실은 배설하는 장소로만 사용하기에는 너무나 값진 장소'라고 강조하고 있다.

세번째는 '말의 안장 위'이다. 말이 움직일 때의 리듬을 타면 기분이 좋아지므로 많은 아이디어를 떠올릴 수 있었다. 요즘은 말을 타지 않으니 전철·버스·택시를 타면 될 것이다.

위 내용을 살펴보면, 선배 발명가들은 일상생활의 모든 곳을 발명의 장소라고 강조하고 있다.

그런데 이점에서도 필자가 최근에 만난 개인 발명가들의 경우가 한결같이 일치하고 있다.

<계속>

<王然中記> <♣>